

1999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保健所·監査擔當官

日 時 1999年 12月 3日(金) 10時02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10時02分 監査開始)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 위원회의 1999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이틀 8시간에 걸친 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향한 중대한 위치에 서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틀을 깨고 새천년에는 정말 보다 나은 구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시고 또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관계관님들은 우리의 염원을 잘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2000년도에는 새천년에는 보다 나은 구정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항과 제5항에 규정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

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李星世 保健所長이 대표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保健所長 李星世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保健所

保健所長 李星世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醫藥課長 丁基聲

監査擔當官

監査擔當官 河徹昇

○委員長 李憲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星世 保健所長의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그 다음 河徹昇 監査擔當官이 업무현황을 보고한 후 감사

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李星世 保健所長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가 있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먼저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課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相駿 保健指導課長 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丁基聲 醫藥課長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부인사)

○委員長 李憲九 이어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연이은 업무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약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지역사회 봉사로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參照)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保健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星世 保健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監査擔當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안녕하십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면서 활기찬 의회 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일부 오자가 났고 작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인데 그 부분을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편철이 되었습니다. 수정부분은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參照)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監査擔當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河徹昇 監査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委員님께서 자료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東奎委員 먼저 감사담당관의 비위자 적출현황, 여론정보 수집현황 관련된 서류를 몽땅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홍보관련 자료 '98, '99 현황관련 자료를 몽땅 갖다 주십시오. 두 가지만 요구합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말씀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미에 하신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선 '98년도와 '99년도의 징계된 공무원수를 보니까 '98년도에 11분, '99년도 10분인데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나요? 징계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적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서 감사하는 경우나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나 처리절차는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5급 이상이 같이 관련된 그런 사안인 경우는 서울시 위원회에 회부해서 서울시징

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6급 이하 직원인 경우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급 이하 직원이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의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하든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든 상관없이 '98년도와 '99년도의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 위해서 검토한 서류가 있잖아요. 여기도 5급, 6급, 7급 이하 해서 모두 21명인데 그 검토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의 감사, 서울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16쪽에 모두 시정요구사항에서 이행내용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98년도, '99년도에 보건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비교적 최근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를 감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97년도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요? '97년도에 감사한 감사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유감스럽게 금년 초하고 금년 가을에 5급 공무원 두 분이 검찰의 수사를 받아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할 때는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관련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한다고 하나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기소되는 사유가 해당기관에 통보될 때 통보내용이 계시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감사에서 동행정감사가 '98년도에 실시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4쪽이 되겠습니다. 7개 동 그리고 종로3,4가동, 창신2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 동이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7개 동을 다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7개 동이 어느어느 동을

말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그 중에서 몇 군데를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일단 감사담당관 자료는 거기까지 요청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직제상 감사담당관실은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죠?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부구청장이면 보통 부이사관인데 부이사관이면 직급상 공직에 봉사한 기간이나 근무한 기간을 볼 때 모든 구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잘 아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청함을 마침과 동시에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인 부구청장께서도 이 자리에 출석해서 답변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安載弘委員께서 盧張鐸 副區廳長을 출석시키자는 안을 얘기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말씀하십시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마는 자기네 어떤 일도 있고 해서 일단 감사를 하고 들어본 다음에 우리가 참석할 것인지 그것은 다음에 결정하십시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李憲九 예, 安載弘委員! 말씀하십시오.

○安載弘委員 그것에 대해서 安載弘委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8년도, '99년도 중에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감사담당관의 답변에 의하면 '97년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의 감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인 부구청장은 적어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구청장께서 출석해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스스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구청장이 되었던 부구청장이 되었던 의원들의 요구에는 출석할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부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수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의 직속상관 기관은 직제상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복지국이나 행정관리국을 감사할 때 담당과장들이 출석하고 국장이 출석하는 사유가 직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지금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안들은 제가 판단할 때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憲九**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을 미리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安載弘委員 동의하신 盧張鐸 副區廳長 참석을 여기서 결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盧張鐸 副區廳長 출석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이해는 되는데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정일을 보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나중에 통보를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安載弘委員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安載弘委員 議席에서** - 기왕에 출석요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출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委員長 李憲九** 이 문제로 인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1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安載弘委員이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安載弘委員의 출석요구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盧張鐸 副區廳長을 본 감사장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모셔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盧張鐸 副區廳長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위원들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말씀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자료제출을 하나 더 요구합니다. 29쪽에 '99 시민불편사항 보수정비 내역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낸 것입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거기에 보면 첫번째 2월 18일날 보안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종로 1,2,3,4가동, 교남, 이화, 혜화, 평창 나와있죠? 거기에서 혜화 것 하나만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갖다주시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자료가 오면 저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우리가 독감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 마스크를 보더라도 타구는 독감 예방주사가 없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지 못하는 그런 구민들이 많이 있어서 물의가 야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종로구는 확실하게 의약품을 확보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보건소와 분소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중부권에 있는 주민들은 자료상으로 봐도 296쪽을 보면 중부권에 있는 분들은 교통편이나 모든 것이 불편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洪議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엔자 독감은 충분한 양을 확보해서 이번에도 1만 4,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한 유아원은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해준 바가 있습니다.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한 양로원이라든가 노인분들도 무료분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부에도 좀더 의료 시혜를 강화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교통편이 불편한 동을 잡아서 그날 홍보를 해서 하루씩 해서 전체 주민들이 예방주사를 맞도록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고려를 해서 조금 원거리에 있는 취약한 곳은 가서 취약한 저소득층은 놔드릴 생각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꼭 좀 해서 우리 전체 주민들이 보건향상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청사는 지상 1층하고 5층 옥상만 효자동사무소에서 활용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보건소에서 활용을 하나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식당 이용하는 것도 같이 통합을 했죠?

○保健所長 李星世 예.

○洪起瑞委員 왜냐하면 이 건물은 어디까지나 보

건소 건물입니다.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예, 감사합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劉燦鍾委員! 질의하십시오.

○劉燦鍾委員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 시정을 요구합니다. 洪起瑞委員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보건소장님이 洪議員님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하게 하세요. 여기는 시민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洪起瑞委員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하시고 洪議員이 됩니까? 시정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여기서는 위원이 되니까 洪起瑞委員 또는 洪委員이 되어야 되겠죠.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종로보건소는 앞으로 주민을 기다리는 보건소가 아니라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소가 되겠다는 말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분쟁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우리 보건소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연루도 안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保健所長 李星世 예, 鄭泰淳委員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이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의 무료의약품에 관해서만 취급하게 됩니다. 유료는 조제분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하게 되죠.

○鄭泰淳委員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불안감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 구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앞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鄭泰淳委員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한 전개과정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 시민들을 좀더 안정되게 서비스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주셔서 그런 사안에 대비하는 보건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보건소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洪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내년에는 구민회관으로 보건소 본소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는 서부진료소를 둘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소는 그대로 있고 서부에 있는 본소만 그대로 옮길 겁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 본소가 구민회관으로 옮겨지잖아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지 않아요.

○朴鍾植委員 그러면 동부진료소가 그리로 옮겨 집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朴鍾植委員 제가 재작년엔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洪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부진료소 쪽하고 서부 본소쪽 주민들은 보건소 혜택을 상당히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부쪽 주민들은 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아예 보건소에 가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5,6가 지역, 원남동 지역에 중부 진료분소를 하나 만들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종로 1,2가, 가회동, 3,4가, 5,6가, 이화동, 혜화동, 명륜동 등 방대한 지역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예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어려울지 모르지만 2000년도에 안되면 2001년도에라도 중부분소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부터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노인정 진료 안내문이랄지 잘 들어옵니다. 또 방역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역을 어느 한정된 지역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지역을 골고루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방역 계획서를, 예를 들어 방역은 하절기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 6월부터 한다고 하면 방역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같은데는 낙후지역도 많고 소독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인데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99년도에 방역활동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웃동네의 모의원에서 방역차가 소독하러 나오면 그 차에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이라고 다니면서 마치 자기가 구청장하고 각별한 사이라 특별히 얘기해서 자기가 방역차 나오게 해서 소독하고 다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니 이웃에 있는 의원이 피곤해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 의원 덕분에 나도 방역차를 한번 타본 일이 있습니다. 타고 다니면서 뒤에서 연기 푸 나오니까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하고 다니니까 좋기는 좋대요. 그러나 의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방역 활동은 가만히 있어도 보건소에서 하는데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쪽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왜 이화동 의원님은 소독을 안 해주냐" 제가 차만 안 타고 다니지 매주 목요일 아침 6시에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도 끝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하나씩 보내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우리 이화동에 보면 에이즈 협회라고 있던데 거기서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거기는 민간인 단체에서 하는 홍보단체입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원 같은 것이 나갑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아닙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지금 종로구 에이즈환자 관리실태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마다 들은 것 같은데 항상 걱정이니깐요. 나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은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에이즈환자가 10월 현재가 11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면담을 하고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면역검사를 해서 만약에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품을 줘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집중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 생활하는 영역 같은 것을 그냥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생활 자체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술집을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러면 에이즈에 대한 민간홍보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더욱 우리 대학로 같은 데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종로의 청소년들한테도 귀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에이즈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2000년도부터는 어떤 계획을 마련해서 가지고 철저하게 홍보를 해주십시오.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朴鍾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업무추진 보고하실 때 여기에 서서 말씀하시던 책자 있죠? 복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항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보건소 경영에 유익한 것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바로 복사를 좀 시켜서 보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280쪽에 아까 말씀 중에 의료장비가 수십몇 대라고 한 것 같아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44대라고 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45종인데요 혈액분석기를 제외한 44종입니다.

○**金正大委員** 거기에 보면 안압측정기하고 체지방측정기, 심폐지구력측정기가 주로 있고 일반병원과 달리 일반병원에 좀 고가품의 기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기는 없습니까? 다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현재 일반적인 검사기는 다 갖췄었는데요 안압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가격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1,200만원짜리 이게 구입년도가 언제쯤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것은 저희가 2000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金正大委員** 구입했던 시기가 몇 년도였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98년도에 아주 작은 거예요.

○**金正大委員**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보건소라고 하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부유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그 중간을 잘라서 조금 약간 부유층, 중상층 이상은 보건소를 잘 찾지 않는 걸로 아예 인식에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기기가 일반 의원원, 다시 말해서 큰 이름이 있는 병원에 있는 기기들이 거의 갖춰져있지 않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싸구려 기기만 갖다놓고 결국은 형식

적인 봉사고 주민의 혈세로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좋은 기기는 요즘 얼마나 좋은 기기들이 많습니까? 이 부근의 병원이 술한 병원들, 대학병원이나 강남삼성의료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 진단을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우리 종로구민들도 그런 데에 가는 것을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보라매병원에 영세민들이 주로 거기는 아주 혁신적으로 좋은 기기들이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이런 데만은 못하지만 획기적으로 종로구민의 보건을 진정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1,200만원짜리 하나 넣고 작년에 샀다가 또 사고 미니식으로 구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투자를 할 때는 의료기기 종로구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이 얼마짜리로 잡혀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검사기기는 다 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金正大委員** 작년에 '9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올려놨다면서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데 지금 구입한 게 아니에요. 2000년도에 구입할 기기입니다.

○**金正大委員** 구입한 게 아니고, 지금 전혀 없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안압기기는 아주 소규모 국소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98년도 9월까지 의료장비, 의약품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있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것이 잘못된 집행내역인 것 같아요.

○**金正大委員** 이렇게 되면 수감자세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예, 안압측정기는 저희가 체력검사를 하면서 모든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기기입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金正大委員**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가 수감장이라 조금 긴장이 되시나본데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동부 보건소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동부, 서부, 중부 이런 얘기를 지난 몇년동안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은 상당히 묘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나도 동부진료소를 아마 두 번 정도 갔을까 그것도 하나의 방문 겸 갔지 진료 차는 간 적이 없습니다. 본소에는 이러한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본소에는 약이나 주고 예를 들어서 피검사를 혈액검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채취해서 본소로 가져와서 한 1주일 후에 본소에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이만 원 내더라도 아예 병원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부분소의 무용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기가 본소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아마 한두 가지 쉽고 싸고 이런 것은 구입하기 쉽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소에는 전부 기기가 있습니다. 맞죠?

○**保健所長 李星世** 지금 검사기기가 본소는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고가장비에 속하다 보니까

○**金正大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가장 비싼 게 얼마짜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혈액분석기가 있는데

○**金正大委員** 혈액분석기가 있는데 1주일이나 이따가 오라고 하더라구요. 본소에서.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감기약이나 타먹으러 가지.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원래 이게 수감은 일문일답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제가 체크를 해서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 예산심의 때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 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서 누구 혼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까라는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적발해서 알고 분석해서 종로구민을 위한 것이지 절대로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나오는 기기, 다시 말해서 제일로 비싼 고가품 기기가 얼마짜리냐고, 간단하게, 제일로 비싼 게

○**保健所長 李星世** 제일 비싼 게 X선 촬영기입

니다. 그게 칠천오백이 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7,500만원짜리는 종로구 보건소에 최고 고가품인 의료기기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 2000년도에 구입할 기 기입니다.

○**金正大委員** 현재는 없죠?

○**保健所長 李星世** 현재 있는데 노후되어 있습 니다.

○**金正大委員** 구입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소 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제그제 연이 틀동안 감사를 하다보니까 고급운동을 하는 데도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본 소에 효자동 보건소에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갔 는데 좀 약간의 서글픔을, 제가 시민행정위원회에 처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병원을 가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수역짜리 수십억짜리 기기가 있습 니다. 누가 보건소에 가겠습니까? 차라리 보건 소를 약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약이나 팔지 그래도 동부지역에 보건본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동료 위 원인 朴鍾植委員께서도 방금 전에 피력을 했습니 다마는 보건소라는 것은 종로구 보건소가 중심지 에 있어 가지고 양 사이드에서 오기 쉽고 편리해 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효자동에 있다보니 제가 언필칭 표현이 심합니다마는 좀 부자촌이라 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는 부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 곳에 갖다놓고 효용가치가 상당히 적다 동부나 아주 서 부 저쪽 무악동이나 달동네 쪽에다 본소를 직원들 서너 사람 나가서 약방식으로 하는 것 동부본소는 약방 이상의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 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하나 해도 사실 1주일 이따가 삼사일 이따가 본소에 와서 분석해 서 온다면 거기에 안 가죠. 내가 직접 본소로 가 버리지. 이래서 중심가에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이고 제가 봐서 는 본래 종로구 보건소로서 다른 구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기가 제일로 비싼 것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7,500만원짜리 하나 올렸다는

데 이것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면 오지 않습니다. 잡다한 성인병이나 이름 모르는 병들이 많은데 큰 데로 가죠. 그래서 기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됩 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언제 한번 의지를 발로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예,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 입니다. 그래서 병원과 그런 어떤 연계를 시킴으 로써 연계를 해줌으로써 유지를 해줘야지 다른 의 료기관과 상반되는. 그래서 또 1차

○**金正大委員** 1차 진료로서 해줘야 될 모든 것을 지금 다 못 갖춘 것 같아요.

○**保健所長 李星世** 다 갖추었습니다. 다 갖추졌 고

○**金正大委員** 그러면 의료기기를 또 구입할 필요 는 없네.

○**保健所長 李星世** 그러니까 2000년에 구입할 기기들이 노후된 기기는 저희가 성인병 검진에 필 요한 기기들을

○**金正大委員** 그러면 왜 비싸지도 않은데 분소는 그렇게 비싼 곳을 임대해놓고 거기는 왜 기기가 별로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기관 으로서

○**金正大委員** 제가 소장님께 의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소에다가도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IMF와 동시에 모든 부근의 의료기관과도 유대 체제를 유지해야 됩니 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모든 갖추미 없는 것은 본소에서 커버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소 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어떤 타구의 의료기관과의 유대도 그러니까 부근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2 차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에도 갈 수가 있고 커버가 안되면 2차 병원으로도 커버가 되죠.

○**金正大委員** 제가 묻는 말에 약간씩 빛나가고 있는데 동부가 되었든 서부가 되었든 본소를 설치

할 때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측면에서 정말 찾아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1차로 제가 물으니까 기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분소에는 약이나 파는 데나 이런 뜻에서 제가 물은 건데 이후에도 그런 계획이 없고 계속 모든 분소에 없는 것은 본소의 기기로 하려는 것은 분소를 약방 정도로 간판을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민회관이 개관이 되면 분소가 그리로 들어간단지요? 우리 동료 위원들은 본소가 그리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은 바로 평소에 우리 구의회에 보건소장님께서도 홍보 부족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본소가 들어가는지 분소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거든요. 우리가 주민의 대표가 모르는데 주민이 알 리가 없죠. 자주자주 접해서 그런 것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답변을 자꾸 길게 하시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기는 내년도에, 좀 줄여서 문질렀습니다. 2000년도에 의료기기 구입의 대수가 약 몇 대에 얼마정도 올랐어요? 그것은 전부다 본소에서 교체할 거고 분소에는 없어요?

○**保健所長 李星世** 지금 이것은 대형간접촬영기입니다. X-RAY 촬영기입니다. 그래서

○**金正大委員** 어차피 그것을 잘 하려면 분소에서도 타동에서도 본소로 와야 되겠네요?

○**保健所長 李星世** 앞으로의 분소는

○**金正大委員** 와야 되겠다 아니다 그것만. 본소로 와야죠?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아까 소장님이 기다리는 뒤편에서 찾아다니는 걸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기기를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보다 싸고 소형이라도 성능이 좋은 게 많으니까 분소다운 분소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 고가품들도 필연적인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IMF 할아버지가 있더라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냥 이름만의 보건소 분소 투자만 해놓고

실이 없는 분소 기능이 별로 좀 미흡한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 질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겠습니다. 동대문구나 성동구 같은 데는 종로보다도 큰데 거기는 분소가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있는 데도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동대문구하고 성동구 둘 중에

○**保健所長 李星世** 성동구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말이죠 동부 진료소도 본소와 똑같은 장비를 놓고 똑같은 인원이 말이죠 앞으로 배치되어서 오히려 지금 위원장이 보기에 동대문 쪽에 영세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에 치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河徹昇 監査擔當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9년도에 7개 동인가를 동행정감사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금년에는 6개 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통장들 수당을 지급하는 현황을 한번 보셨나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어떻게 지급했어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나오지 않고 서명이 안되었는데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적해서 어떻게 시정 조치를 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일단 현재 보고서는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이야 동사무소 종합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행정

관리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어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야도 우리가 감사실에서 챙기고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 곁들여서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 매일신문들이 나가는 것이 배달사고가 몇 건이나 되나 이런 것도 한번 감사를 해보셨나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 구에서 통반장님들에게 지급되는 배부되는 대한매일신문이 1,000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설문문을 해본 결과 통화를 할 수 있는 분이 630여 명이 통화를 했습니다. 637명이 통화를 해서 그 중에서 60여 분이 받아본 적이 없다, 또 한 10분 정도는 간혹 못 받는 적도 있다 하는 그런 설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가 배달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왜 그런 배달사고가 발생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첫째로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교체가 되면 그때그때 문화공보실에다 통보를 하고 공보계에다 통보해주고 바뀐 새로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배달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에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실제로 배달이 안되었으면 배달을 확인해서 배달이 된 만큼만 구독료를 보급소에 지급해야 되는데 일단 확정된 인원, 책정된 인원 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상 구독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의 담당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일부 보급소에 배달사고가 잦은 문제가 있는 보급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새벽에 보급소장을 직접 만나서 약약서를 받고 그래서 체계 정비를 한 이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배달사고가 있었다라고 설문을 한 60여 분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을 했더니 그래도 15명 정도가 아직 배달이 안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에 대해서 왜 배달이 안되고 있는지,

한두분 정도는 본인이 다른 신문을 보니까 본인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배달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답변한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보급소에서 배달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5명에 대해서는

○洪起瑞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盧張鐸 副區廳長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하신 安載弘委員께 질의권을 넘겨주시는 데에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洪起瑞委員 예.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정회 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부구청장님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발언을 하는 내용은 전혀 여러분들과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먼저 감사담당관과 또는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시고, 제가 하는 것은 의원 신분으로서 발언한 사항이니까 설사 그것이 불쾌하시더라도 본 위원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니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종로구 직제상 감사담당관실은 과장이 주 담당관이 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부구청장실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적어도 감사를 받기 전에 부구청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로구 직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소속된 25명의 모든 직원들은 적어도 소관부서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자질로 구성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 감사에 나가서 느낀 점은 도대체 종로구

청의 일반 행정업무 전반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부조직에서는 상부조직에서 그러니까 상급관청에서 지시한 모든 사항들이나 또는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이행이 되어야 할 모든 사항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점들이 포괄적으로 볼 때 종로구 행정 전체를 놓고 볼 때 소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데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 소속된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추호도 없고 공적 신분으로서 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얘기할 수 있고 답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에게 출석 요구한 것이고 감사담당관과 관련된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오해를 푸시고 좀더 본 위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아까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洪起瑞委員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일선 행정기관인 동행정에 가면 도대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자체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이라는 애깁니다. 예를 들어서 창신2동이나 이화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건축법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무려 33건 이상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위배된 사항들이 담당공무원들의 목인 하에 방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도 아닌 의원이 지적할 때는 전문가들인 여러분 감사담당관실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지적한다면 종로구 일선 동은 난리가 날 겁니다. 노인교통비 지급 문제라든지 경로당의 운영비 지급 문제

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그것을 잡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출석 요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직속 상관인 부구청장께서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21일 지방채 40억을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副區廳長 盧張鐸 예,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예산 모두가 구민회관 설립 기금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副區廳長 盧張鐸 예,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한 기본적인 이유가 구민회관 건립금이 모자랐기 때문에 40억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副區廳長 盧張鐸 당초의 발행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安載弘委員 그렇죠. 최초에 40억을 기채를 할 때 그 기채의 목적이 구민회관 시설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기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는 겁니다.

○副區廳長 盧張鐸 당초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결과를 알고 있고 목적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99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지방채 발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적어도 여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이 적어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적어도 그 지방채를 그 당시에 발행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종로구청의 핵심 부서로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한 예산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기본적인 책무가 적발감사와 예방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도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도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安載弘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수렴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시정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1년에 약 6개 동에서 7개 동씩 3년 주기로 각 동사무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유형의 사례들이 다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정시키기도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창신3동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6개 동을 마쳤습니다마는 금년도 역시 예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소규모사업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봤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 액수는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에 현실적으로 1개 동을 약 3일 정도의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체크해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그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왜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감사 기능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정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방채 발행이 타당하나 아니면 타당하지 못하나 하는 부분은 저희 자체 감사기구에서 따지기에는 고도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감사를 할 때 따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제로 저희 감사실의 어떤 능력으로는 또 원래 저희 자체감사 기능의 한계를 볼 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적어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위원들이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총무과의 관련부서나 동정계에서 통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시하는 사안들이 동사무소 행정에서는 하나도 먹히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위원들이 감사를 나가겠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면 소속 담당직원 모두는 적어도 밤을 새우면서 위원들의 감사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찾아오는 속도나 자료가 정리된 수준이나 공문서의 관리실태나 상급관서의 이행실태가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종로구청의 일선행정조직인 동사무소 조직은 커다란 동맥경화에 걸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재활용품 수거실적과 '99년도의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면 약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어제 청소행정과장의 발언에 의하면 쓰레기량은 줄어 들고 재활용품량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나 줄어든 사유와 양이 줄어들드니까 재활용품 기금으로 이월되는 수익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副區廳長 盧張鐸 보고는 개략적으로 받았습시다마는 구체적인 계수 문제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감사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적어도 재활용품량이 증가

했다면 상식적으로 그 수거와 관련된 비용들이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이 커다란 비리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가 쓰레기량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량이 증가했다면 적어도 재활용품과 관련된 수익금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5%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는 엄청난 비리가 개입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감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한번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저희들이 지금 구의회 수감이라든지 예산심의 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확인조사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예산심의가 본회의가 24일에 끝나면 2000년도로 넘어갈텐데요.

○監査擔當官 河撤昇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를 지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왜냐하면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날짜를 확정지어서 보고드리기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 盧張鐸 부구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제가 오해하지 않았나라는 말씀

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부구청장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회의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고 언제나 출석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모두가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또한 주민의 대표라는 그러한 인식을 확고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동행정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까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격무도 있거니와 또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감사부서를 동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에 와서 어떤 때는 감사가 중복되기도 합니다. 감사원 감사 2주일 동안 하지 않나 시 감사 겹치고 행자부에서도 겹치고 또는 부처에서도 겹쳐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바로 정부종합청사가 코앞에 있다보니까 그저 특하면 읍니다. 사전감사도 한번 해보고 무슨 용어가 다르기는 합니까마는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본청 부서도 그렇고 특히 감사담당관실이 그런 것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방향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감사담당관실을 동원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경직이 됩니다. 아까 동맥경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아마 동에서는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거나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거나 청소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면 처벌이다 해서 공무원들이 경직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침 간부회

의가 있고 동장회의도 있고 해서 그때 청장님이나 제가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시정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시에서 하는 5대 분야 또 安載弘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의 지침이 제대로 동에 파급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에 특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동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책의 침투도 제대로 되고 하는 그런 조화로운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좋은 말씀을 해주신 副區廳長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행정부분에서 근무를 해오신 우리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원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30년, 40년 가까운 세월을 공직에 봉사하시면서 어떤 행정쇄신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청취를 하고 의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또는 부구청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행정에 대한 소신에 맞추어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과연 제가 판단한 것이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종로구청에 계시는 동안 적어도 우리 종로구청이 정치일번지, 문화일번지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독려하시고 가장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盧張鐸**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大委員** 간단히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창신3동, 송인1,2동, 청운, 효자, 사직 6개 동을 지금 감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내용 중에 제가 주민의 심부름

꾼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盧張鐸 副區廳長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구정 질문에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동료위원들이 해마다 질문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법정사안 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모호하게 답변이 넘어갔던 부분인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적한 무허가건물을 이번에 적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옥상에 1평 내지 2평, 3평, 4평 이런 것이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 직원 하나가 계속 압류통고서를 보냅니다. 1평, 2평짜리 아주 작은 이런 무허가건물은 10년, 20년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동 주민의 대표로서 늘 청장이나 해당과에 언질이 많았던 부분인데 새삼스럽게 YS정권 때 역사 바로 세우기처럼 일제히 조사해서 일제히 압류통고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제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무유기면 과거에 송인동, 창신동, 무악동, 명륜동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달동네에 그 오랜 것들을 전부다 압류고지를 할 것이냐고 물으니깐 일손이 모자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압류통고하는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주택과, 담당관도 연루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을 유보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집은 선별적으로 압류통고가 나가고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데 적발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를 굳이 말한다면 감사담당관한테 물겠는데 각 동에는 통 담당이 있고 건축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 것 같으면 10년 전에 근무했던 동장으로부터 통담당, 건축담당 전부가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무허가의 개념은 동사무소 동장 이하 주택과에서 가서 못하게 하면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묵인해 왔고 동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

인지 감사담당관이나 부구청장님 이것을 집행을 유보하는 권한도 없습니까? 자치구에서, 그것도 한두 평짜리 칠팔십 평짜리도 준비하게 많습니다. 내가 재작년에 칼라로 사진 찍어둔 것도 있어요. 교회 크게 지어놓은 것 몇 개 있습니다. 왜 달동네들만 집중적으로 건수 올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河撤昇 우선 감사담당관이 金正大委員님의 질문에 먼저 실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金正大委員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수천건 수만건 되는 것을 모조리 압류통고서를 보낼 것인지 소위 이행강제금이라는 라벨이 붙어 가지고 온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개념은 제가 재무건설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철거할 때까지 돈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제 금년들어 직원들 월급을 주네 못주네 하니까 세수증대 차원에서 아주 압류까지 해버려요. 한두 평짜리 무허가를 가지고

○監査擔當官 河撤昇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신발생 무허가 단속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자체계획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각 구에 동일하게 주택과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과 차원에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는 곤란합니다.

○金正大委員 다시 내가 말씀드릴까요? 힘없고 백없고 정말로 줄을 달 데가 없는 사람만 압류통고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누구누구 친하다 어디어디에 있다 그러면서 이 무허가가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은 한쪽으로 양성화를 하면서 3년 5년 지나면 궁극적으로 이행강제금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는 압류통고서를 보내는데 누구 재산을 누구맘대로 압류하는 거예요? 그 기본법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副區廳長님! 이런 서민들이 옥상이나 베란다에 만든 한두 평짜리 5평 이하짜리는 묶어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서 유보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과연 역사바로세우기처럼 그렇게 법대로 잘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副區廳長 盧張鏗 그 문제에 대해서 실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피부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간부회의가 부구청장 주재로

○金正大委員 서울시 얘기는 하지 마세요.

○副區廳長 盧張鏗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2주만에 한번씩 열리는데 이 문제가 부구청장들 간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델리키트한 문제가 많아요. 어떤 때는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갑니다. 이 앞에만 나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눈만 뜨면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正大委員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신발생에다가 역점을 두세요. 3년 5년 이상 이런 것은

○副區廳長 盧張鏗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지적하시는 문제를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같이 걱정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현실적으로 동감합니다.

○金正大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니다. 盧張鐸 副區廳長님! 가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에 대한 이해관을 피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副區廳長 盧張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언 제라도 달려오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자주 좀 오십시오. 또 질의하 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 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7分 會議中止)

(13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李東奎委員하고 安載弘委員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가 빨리빨리 도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 셧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갖다 드리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우리 保健所長님! 점심 많이 드셨 습니까? 李東奎委員입니다. 우선 保健所長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홍보자료를 저희 들이 요구를 했는데 홍보자료라고 하는 것이 이렇 게 홍보물지 몇 장 가져왔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 닌가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홍보활동을 합니 까? 답변하세요.

○保健所長 李星世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여 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죠.

○李東奎委員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러죠.

○李東奎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 데 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료라고 갖다주신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아마

○李東奎委員 이렇게 불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시 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죠.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한

○李東奎委員 보건소가 멀다는 이유를 대고 이런 식으로 수감을 방해하는 것은 차수변경을 해서라 도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죠. 아 마 잘못 알고 있었을 겁니다.

○李東奎委員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 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없이 부득이 차수변 경을 할 수밖에 없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슨 홍보물책 자 몇 개 갖다주고 자료라고 저한테 제출하신 겁 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그 홍보물 그 자체만 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았죠. 그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 어서 다소의 위원들이 고성이 오르고 다소의 거친 발언들이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것 가져오신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묻습 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의 우리 보건행정에 대 해서 홍보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뽑아보 지를 않았는데요.

○李東奎委員 보건소장님! 어떻게 팀장이 그것 도 모르고 계십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종로의 보건행정에 대한 것이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保健所長 李星世 홍보인쇄물로써 나간 것이 있 고 또 우리가 계획서에 의해서 홍보가 된 것이 있 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자세하게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 다.

○李東奎委員 그럼 지금 보건행정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비로 책정된 것이 '99년에 얼마입니까? 누구 아시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保健行政課長 崔容洵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李東奎委員 '99년도 그렇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예.

○李東奎委員 '98년도는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98년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잘 못하십니까?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지금 1년 됐습니다.

○李東奎委員 1년 되셨으면 잘 모르시겠네요.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보건지도과에 150만원 정도 홍보유인물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약 350만원 정도 '99년도에 그렇다 이거죠?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예.

○李東奎委員 홍보파트로 인해서 홍보물 관계로 해서 홍보하는 비용이 아주 미세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어느 쪽에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여러 가지 리플렛(leaflet)이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통해서 내보내는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보건소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까지 인식을 하시는 분이 홍보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밖에 책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71명입니다.

○李東奎委員 71명, 원래 정원은 73명이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현원이 71명이고 정원이 73명이죠?

○保健所長 李星世 예.

○李東奎委員 그러면 정원보다 조금 미달이네요. 2명이

○保健所長 李星世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부족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국장님이 부족하시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보건소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불필요한 인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느 파트별로 가보면 놀고 앉아 있는 직원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모든 건강증진을 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사무가 9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과와 계가 서로 특수성이 있어서 어느 부서는 출장업무가 많고 또 보건소 내에서 진료파트로 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파트별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李東奎委員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제도개선을 만들고 계획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20세기말에 지금 다른 부분들은 모든 것이 뉴밀레니엄 시대라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찾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각 부서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다른 부서의 팀장들의 말을 들어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건행정에서는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같은 것을 혹시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앞으로의 계획은 노령화되고 노인인구에 대해서 또 요즘에는 전염병보다는 성인병 유발이 많이 되어서 성인병과 또 노인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증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못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혀 통감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말이죠 보건소에서 무슨 약을 주고 무슨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건강체크를 하고 하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金正大委員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부 보건소입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동부진료소

○李東奎委員 동부분소죠? 분소에 조그마한 약국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금 아주 어려운 우리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서민경제는 이제야 IMF가 온다고 하고 이제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 문제를 낱낱이 짚어보면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홍보비가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나니까 불과 1년에 350만원입니다. 350만원 같으면 신문료 내기에도 벱찰 정도의 돈들입니다.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좀더 많은 것을 알려가지고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

○李東奎委員 아주 솔직한 대답을 해주셔서,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기회 닿는 대로 반영

을 시켜서

○李東奎委員 그것은 무의미한 애깁니다. 무책입한 애깁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하시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李東奎委員 그러면 급하네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은 놔두고 그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7쪽에 보시면 비위자 적출이 '98년도에 17명이고 '99년도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위자 적출한 사람들은 주로 어느 쪽 사람들입니까? 전체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적으로 국한되어서 한 사항입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감사담당관이 李東奎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4명은 저희들이 암행감찰반을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감찰 중에 적출된 직원들만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 또 민원관리활동과 관련해서 징계조치를 했거나 훈계처분한 직원은 별도로 앞에 징계 현황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징계 현황을 넘겨주십시오.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10명입니다.

○李東奎委員 징계 현황이 몇 쪽이죠?

○監査擔當官 河徹昇 13쪽이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몇 명으로 되어 있다가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10명입니다.

○李東奎委員 10명 내용 아세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누구누구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13쪽에 '99년도 6급 이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라고는 하나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함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공사관련 뇌물수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최근에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민간협회 기금 모금 및 출납통장 보관으로 해임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스협회와 관련된 것인데 협회의 기금을 계장이 직접 주도적으로 모금을 했고 또 통장을 본인의 인감으로 된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약 3,700여 만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협회 회원들과 제주도 1박2일 여행을 같이 갈 때 직원들과 동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회의 기금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주도적으로 모금을 한 데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인감으로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7급 이하 중에서 연말연시 사례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1번 사항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연말에 수고한다고 직원에게 10만원을 전달하다가 적출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위생업소관련 뇌물수수 두번째 사항은 이 직원이 강동구에 있을 때 나이트클럽 허가와 관련해서 선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0만원을 받고 검찰로부터 구속되어서 징계된 사항이고, 세번째 사항도 역시 이 직원이 저희 구에 오기 전에 강동구에 있으면서 재건축조합 사업승인을 좀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서 그쪽에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네번째 사항도 동대문구에 있으면서 지도점검차 가가지고 금품수수를 했던 사항이고, 다섯번째 사항은 1번 사항과 동일한 건으로서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은 제가 말씀드렸던 2번 사항하고 같이 연류가 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다만 이 사람은 직원들로서 협회 기금 모금에는 관여를 안 했고 허위로 연가를 내고 제주도에 같이 참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묻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체죠? 우리 종로구 전체입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고 판단되죠? 어느 부서의 어느 곳이든 잘못되어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들이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발 여부를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업무라고 보니까? 맞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李東奎委員 그런데 '99년 9월달에 발생한 일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전용구라는 환경미화원이 위반을 했어요. 무슨 위반을 했느냐면 주민들한테 팁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적발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직 3일을 당하는 그러한 정보가 저한테 들어와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종로를 다 전체 책임을 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은 적발을 못하고 적출을 못하고 파악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李東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체크가 된 사항입니다. 체크가 되어서 관련과로 통보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징계 지침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내용을 조사를 해서 관련과에 통보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복무지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복무지침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바로 그것이 약점이 아닐까요? 약점이라면 약점 같은데 그 약점에 대해서 웬만하면 소관부서에서 눈을 감아주는 또는 그냥 지나가는 또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부서장에게 팀장에게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저희 규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관련부서의 의견도 존중을 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조금 관련과에서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도 강도 높은 규정이 없어서 정직 3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맹점이라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보완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말로만 말고 실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말로만 될 좀 하면 한다고 하고 또 한다고 하고. 자! 아까 서두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감사담당관님께서 구속된 토목과장 부분이라든지 또는 전에 도시계획과장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얘기했죠? 왜 뭐든지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단도리를 합니까? 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監査擔當官 河徹昇 앞에 업무보고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하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 예방감사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이 전부입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번에 본 위원이 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된 건데 29쪽을 봐주세요. 시민불편사항 보수 정비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관련자료를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보안등 설치공사에 보안등 38등이 종로1~4가, 교남, 이화, 혜화, 평창, 창신2동 예로 거기에서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화동에는 이번에 본 위원이 동감사를 하면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를 발견했느냐면 1개 품목이 '98년도하고 '99년도 단가가 다릅니다. 그 단가가 다른 이유는 '98년도가 단가가 더 비쌉니다. '99년도보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그런지

○監査擔當官 河徹昇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러시죠? 그런데 토목과에서 공

사를 각 동사무소로 지침을 해줄 때 단가가 '98년도 게 상당히 비쌉니다. 거의 더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상당히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게.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재무건설 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에 질문을 하니깐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비싸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98년도가 인건비가 더 비쌌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제가 직접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개인의 소견으로 '98년도가 인건비가 비쌀 것 같아요? '99년도가 비쌀 것 같아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李東奎委員 감사담당관님!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河課長님께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에서 다 서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98년도, '97년도 12월에 IMF가 왔죠? 맞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97년 12월에 IMF가 와가지고 '98년도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비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99년도에 단가가 절반 이상 떨어지고 그 래놓고 질문을 하니깐 '전년도에 의원님들이 다운 시켰습니다' 이런 걸 감사를 안하고 뭘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가. 기강 올바르게 잡고 모든 공무원들이 제대로 제자리에서 일을 해나가느냐 비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나가는 게 지금 감사담당관들의 역할이죠? 맞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맞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지금 이제 서민들은 IMF가 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보안등 수리나 보안등 교체공사가 된 것을 보면 '98년도하고 더블스코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나 주민이 낸 세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예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19개 동인데 행정동이 19개 동을 한번 합쳐보세요. 대충 합쳐보니까 5천만원 6천만원 정도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좋지 않은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공무원들이 장난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서 제대로 낱알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거리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것이 아마 솔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98년도 단가하고 '99년도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끝까지 추적하셔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또다시 이것이 반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예,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우리 河課長님한테 고성을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는 조금더 성의있게 접근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부구청장님이 출석하는 바람에 동료 위원한테 넘기느라고 질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우리 매일신문의 배달사고가 10%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0%면 우리가 예를 들면 1,000부를 금년에 한다면 100부 정도가 배달사고죠? 100부 정도가 배달사고면 월로 따지면 80만원 연간 1천여 만원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반장들한테 지급되는 신문대로 들어가지 않고 매일신문사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는 한 20 내지 30% 배달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금년에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10%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10% 정도 배달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신문대를 그만큼 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도 11월분, 12월분이 아마 신문대금이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만큼은 공제를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의 배달사고가 있었습니다. 배달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아예 배달이 안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배달이 되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통반장 명단을 제때제때 교체를 안해줬습니다. 거기 보급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에게 배달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예 배달이 안된 분은 저희들이 환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실수로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로 정확하게 통반장님들한테 전달은 배달은 안되었지만 다른 분들에게 배달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15명 내외를 제외하고는 배달이 100%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일단 구독료를 지급할 때 보급소에서 일단 배달 확인을 받고 다시 한 번 동장 책임 하에서 배달 확인을 거친 다음에

배달된 숫자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또 수시로 배달사고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조사했을 때 제일 배달사고가 없는 동이 어느 동이었고 배달사고가 많은 동이 어느 동이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배달사고가 높은 동이 사고율이 높은 3개 동을 말씀드리면 창신1동, 3동, 명륜3가동입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배달이 잘 되었다고 높은 동은

○監査擔當官 河徹昇 청운동, 삼청동 그 다음에 종로1·2·3·4가동, 그 다음에 교남, 무악, 평창, 부암동쪽은 배달사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교남동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도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조사를 안하고 담당한테 물었어요. 2부가 배달사고랍니다. 잘 되었다고 과장님이 잘 되었다고 하는 데가 2부가 되고 제일 잘 된 곳이. 그러면 잘못된 곳은 10부 이상 나올 거란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을.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배달사고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제 겨우 금년에 정착이 되어서 감사실에서 이제서야 샘플조사를 하고 겨우 손을 댔습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그 부분만큼은 예산을 지출 안 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지 그것을 방지해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금년도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금이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洪起瑞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동행정감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 가게 되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보통 40가구 내지 3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예를 들어서 관할동에 취임을 해서

나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런 서민들층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을 보면 이 감사실에서 나갔을 때 동장 근무일지를 보니까? 근무일지 확인을 하시냐고.

○監査擔當官 河徹昇 직원들 근무일지는 확인을 하는데요 아마 동장님들 것까지 확인하지는,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동장 근무일지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1년 것 해봐야 40일 정도 기록해놓고 나머지는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감독자가 자료를 기록을 안 하고 하면서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근무일지를 봐도 대다수가 실질적으로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서민층을 돌아 봐야 됩니다. 거택보호자 할머니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동장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가지고 당신이 생활보호대상자들 몇 집이나 아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 한번 가봐서 아리송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한번 가봐서 아리송해도 그 지역에 부임한 지 1년 이상 넘은 동장이면 그래도 그런 집들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동 감사를 나갈 때는 어떤 큰 틀 속에 비리를 적발하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에 우리 서민들을 위주로 하는 이런 분야에도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의지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할 때는 꼭 위원님 고견을 반영해서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복무기강 점검해가지고 점검횟수가 12번해서 출퇴근, 무단이석, 무단출장 이렇게 해가지고 적발사항이 나와있어요. 조치사항이 훈계 등 주의촉구가 68명, 당직

48명, 시정이 24명으로 나와있는데 5급 이상은 적발된 건수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동장급 이상이 적발된 사람이

○監査擔當官 河徹昇 5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나가도 6급 이하 7급 이하만 하지 5급 이상은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사회나 어떤 사회단체든 간에 뭐든지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2번 나가면 여기에 적발된 사람이 150명 정도 되면 적어도 5급 이상인 자가 최하 5명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했다는 보람이 있는 거지 밑에 내려가서 말단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하면 감사를 할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간부들까지도 공평하게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계서 앞으로 친절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민원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로가 친절도 1위다 안전 1위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부딪혀보면 그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 건축법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높이를 얼마나 봅니까? 높이가 2.2m 이상 되어야 불법건축물로 보죠? 그렇게 보죠?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洪起瑞委員 그런데 높이가 1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m 정도 되고 한 평 정도 되는 것을 이것을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속반이 그것도 삼사 명이 와서 무참하게 부서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모 동네는 무허가로 이렇게 버젓이 적발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적발 보고를 올리니까 주택과에서 나와가지고 귀퉁이만 살짝 건드려놓고 그냥 갔어요. 주택과로 들어온 다음에 버젓이 해가지고 거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실로. 예를 들어서 오류 평 거실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주민들은 감사대상에서 적발도 안되고 주택과에서도 봐주고 서민들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 다 화분대 놓고 궁해서 젓갈장사를 하기 때문에 젓갈통을 늘어놓으면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한 평이 안됩니다. 높이가 1m도 안됩니다. 이걸 무단 증축물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망치질을 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출을 해가지고 철저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서류상에 엄청난 보고를 했다 적출을 했다 이렇게 해도 현장에 가게 되면 안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 평도 불법건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적치물로 보면 몰라도 불법건물로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철거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망치로 부셔가지고 철십 된 노인네가 한 열흘씩 자리에 눕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金正大委員께서도 부구청장 계실 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건물도 힘없고 뺨없이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이런 한 평 정도 되는 것도 무차별하게 철거를 당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사항도 주택과에서 한번 와가지고 한 다음에 눈감아서 버젓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위헌적인 행정을 펼쳐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무허가 단속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이고 항상 형평성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부분까지 세세히 일제히 문제점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오히려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이것보다

크게 무허가건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나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계서는 인원이 모자란다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담당관 현황표를 보면 인원 현황에 25명인데 29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구청장 부속실장으로 1명, 기획조정팀 1명, 직소민원실 9급 1명, 새주소부여추진반 1명 4명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실이나 이런 데를 감사실에서 파견해야 됩니까? 엄연히 총무과 소속으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걸 현원으로 잡아가지고 인원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왜 여기에다 파견을 해요? 감사실 인원을 가지고 그 인원을 좀더 지역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는 애깁니다. 행정의 운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운영부터가. 인원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배치했다라면 이런 건 하나라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구청장실을 감사실에서 파견을 합니까? 엄연히 구청장실은 총무과에서 정식으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배치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실에서 여기를 왜 파견나갑니까? 그리고 감사실은 구청에서 힘있는 부서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인원을 챙겨가지고 남으니까 여기서도 파견내고 저기도 파견해보고 이런 결과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 현황도 조정을 하십시오.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파트에서 필요한 인원을 감사파트에 쓰면 모르지만 감사파트에 많은 인원을 저기해 가지고 여기저기 배치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추진반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차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서도 몇 명이 차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朴鍾植委員** 감사실 정원이 25명인데 29명으로 4명이 늘었는데 이 4명씩 늘어났으면 원칙적으로는 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위반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법률위반인 것 같아요. 4명씩이나 늘었다고 하면 정원조례 개정을 해야죠. 구청장한테 가서 의회에 개정안 제출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4명씩이나 늘어난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監査擔當官 河撤昇** 위원님 말씀대로 과원이 있으면 정원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추진반들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정원조정 문제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朴鍾植委員** 지난 추경 때도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한테 많이 퍼부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법률위반을 하면서까지 우리 의회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7월달에 사진전시회가 있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신동 유태평양 군 공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예산에 없었던 거예요. 예산에 없었던 것을 구청에서 임의로 7월 복중에 행사를 치르고 8월 25일인가 추경을 했는데 그때 미리 집행해 버리고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올렸어요. 그것은 분명히 법률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지탄을 많이 받고 행정관리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도 감사실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토목과 감사 결과를 작성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목과가 그 동안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 구청 발주 공사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뒀잖아요. 그 지역 구의원이 명예감독관 한 사람이 되고 그 지역의 통장이나 누

구 명예감독관이 되도록 두 사람에게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주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명예감독관에게 서명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하고 잔금처리를 해서 업자를 철수시켰는데 요즘 토목과에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연건동하고 동송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소방도로 공사를 '98년도 1차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났는지 언제 업자들이 철수했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왜 우리 집 앞에 뭘 부숴놓고 안 고쳐주느냐 왜 우리 집 처마를 부숴놓고 그것 고쳐준다고 해놓고서 안 고쳐주느냐 민원은 많은데 업자는 철수해 버리고 구청에 알아보니까 준공처리 되어서 다 잔금 빼서 가버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뒤가지고 명예감독관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명예감독관들이 관리감독도 하고 준공처리 전에 서명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데는 토목과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감사할 때 그런 부분들도 살펴봤나요?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그런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감독관제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예감독관제도 기본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렇게 되니까 우선 동송동 지역은 경사지역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비가 왔는데 동네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가보니까 소방도로 자체가 냇물입니다. 하수도 자체가 엄청난 하자가 일단 말입니다. 그 하수도 자체를 뜯고치려면 큰 공사가 되는데 하자보수비만 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점을 깊이 유념해서 구정관리에 전념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사업이지만 내 집안 사업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監査擔當官 河撤昇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載弘 朴鍾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님! 질문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묻습니다. 아침에 저희들한테 보고해준 내용 중에 관리한 소관부서를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부터 편중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별로 다 보는 것이 아닙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에 정식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아야 6,7개 부서를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해야 하고 또 감사기간이 최소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는 데다가 외부감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6,7개 분야를 넘기게 되면 굉장히 벅잡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주로 주택, 세무, 위생, 건축 이 분야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서울시에서 5대 민생분야 지적된 것이 건축, 세무, 주택, 위생, 토목 이렇게 해 가지고 5대 민생분야에 대해서 연간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시켜라 하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 감사방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금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분야는 2,3년 계속 받는 분야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위생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똑같은 해에 감사원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다보니까 굉장히 감사받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감사실에 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감사를 한번도 못해본 부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인이 많은 부서에 역량을 집중해서 우선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하라는 이런 감사방향이 있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일부 부서에 편중되게 되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면 좋습니다. 우선 위생분야에 있어서 위생接客업소 또는 유통관련업소 또는 거기에 따르는 안전관리실태 같은 것은 제대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李東奎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하고 유통관련업소는 비디오방, 노래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디오방, 노래방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4일간에 걸쳐서 민간인, 새마을지도자분들도 모시고 한 2,20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불법영업을 위주로 본 것이 아니고 주로 화재예방 중심으로 소방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했고요. 지금 현재 위생과 주관으로 2월 29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렇습니까? 또 하나 더 물을게요. 여직원 환경순찰에 대해서 주 1회 했는데 구민생활불편 요인에 대해서 환경위해 요인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순찰한다고 그랬죠? 거기의 추진실적이 18회 97건 적출정비라고 했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監査擔當官 河撤昇 저희들이 여직원을 1개 조 3명으로 해 가지고 오후 시간대에 관내를 순찰을 하면서 여성의 섬세한 시각으로 남자 직원이 보이지 못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위해요인이 있으면 적출을 해서 시정하자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는데 빠지는 주도 있을 겁니다. 행사 때문에 매주마다 다 운영을 하기는 어렵고

○李東奎委員 주로 적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주로 적출되는 게 공중화장실이 저저분하다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적치 또는 도로가 소파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요? 그런데 환경위해요인은 꼭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각적으로 많다고 보는데 지금 한 예로

지봉로 확장공사 또 6호선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6-8공구 구간에 가보면 이곳이 바로 창신역 부근하고 동묘역 부근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창신역 부근이나 동묘역 부근에 가면 분진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해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가서 적출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여직원 환경순찰대 외에도 저희가 안전순찰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상세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잘 알겠습니다. 또 친절도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친절도우미 운영은 아침에 설명한 대로 도우미 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고 또는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친절봉사상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절하고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친절은 판이하게 달라요. 하나의 예로 지금 구청 앞 민원실에 보면 여자직원 하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 직원은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갖다놨는지 잘생기고 잘빠진 남자들만 가면 인사를 해요. 한 예로 우리 의원 중에서 宣相善議員만 지나가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같이 못생긴 의원이 지나가면 인사를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런 부분이 못 미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앞에다 세워놓는 사람인데 의원이 점심을 먹고 와도 議長님이 지나가도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해요. 뻗뻗하게 먼 산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둘 사람이 없어서 안경 낀 사람을 갖다 놨어요? 혹시 물어보면 눈이 잘 안 보여서 인사 못한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도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친절을 따지고 있습니까? 잘못됐어요. 한번 보세요. 내려가서

○監査擔當官 河撤昇 저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치한 관련과에 그렇지 않아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東奎委員 바로 시정해 주세요. 그런 것은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 다음에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가지 친절도평가 해가지고 매월 우수부서와 우수직원 표창 및 포상휴가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몰라도 친절도가 낮은 부서들이 많습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 토목과, 환경위생과 우리 위원들은 꼽을 수가 있어요. 제일 불친절한 부서가 주택과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주택과에서 무슨 친절상을 받고 환경위생과 직원이 포상을 받고 했더라고요. 친절이란 어떤 겁니까? 최소한도 민원인이 갔을 때 최소한 갖춰야 할 부분을 갖추고 또는 전화가 왔을 때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이 피부에 닿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친절이죠. 이것이. 그런 것도 안되어 있어요. 예, 아무 부서에 누구누구 누구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재차 누구라고 하셨죠? 하고 물으면 아, 누구라니까요. 무슨 누구 이름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놓고 한참 뭐라고 나무래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발음이 또박또박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있죠?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그렇습니다.

○李東奎委員 그것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 부분은 앞 서두에는 흐리다가 '좋은 하루 되십시오'는 또박또박 잘 나와요. 그런 부서들이 무슨 친절상을 받고 잘못됐어요. 제일 문제인 부서는 주택과입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되죠. 찾아가도 불친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주세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바로 실시하십시오.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李東奎委員 기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 제일 중요부서가 과연 어디냐고 볼 때 역시 감사담당관 부서라고 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미세한 것 하나 때문에 누가 욕을 먹느냐 하면 바로 區廳長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보세요. 24시가 부족해서 25시 구청장님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입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구청장께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통령을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력해도 밑의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청장께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東奎委員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監査擔當官 河撤昇 앞으로 저희 구청장님을 잘 보좌를 하고 의원님들의 뜻과 요구사항에 대처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우리들의 요구에만 따르지 말고 저 밑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힘없고 백없는 그런 불쌍한 서민들이 와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잘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監査擔當官 河撤昇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로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소관 부서장이 말씀드려도 되

겠죠? 행정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保健行政課長 崔容洵입니다.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21개이고 공동우물이 18개, 수영장 7개 욕수조

○洪起瑞委員 아니, 약수터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약수터는 21개입니다.

○洪起瑞委員 21개 중에서 적합관정을 받은 약수터가 몇 개나 됩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洪起瑞委員 왜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나머지는 지금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洪起瑞委員 그러면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수질검사를 우리한테 의뢰를 합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좌우지간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더라도 물에 대한 오염도나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잖아요?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해당 부서에서 검사 의뢰를 하면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검사 의뢰가 오기 전에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 뛰는 보건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우리 종로관내에 있는 약수터는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수도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각 공원에 있는 약수물을 우리 행정만 믿고 열심히 마셔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열의 하나라도 못 마실 것으로 수질판정이 된 것을 잘못 마셨을 때 건강을 해치는 여파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시설관리야 당연히 녹지과에서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물 수질관리 같은 것 수질검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지금은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즉시 즉시 거기에다가 공고문을 붙여줘야 합니다. 이 물은 마시는 데 적합하다든지 마셔서는 안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 그렇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마시지 못할 물을 마셔 가지고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서 시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전염병 없이 우리 종로구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보건소에 2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98년도와 '99년도의 본소와 지소에 보건소 이용주민에 대한 숫자와 조금 전에 자료 하나 제출요구 받으신 것 있죠? 자료를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5조에는 종합감사계획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종합감사계획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렇다면 '97년도 2월달에 보건소 감사가 있었다면 '99년도 연초 감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분야가 6,7개를 넘기게 되면 벅합니다. 그런데다가 올해는 모든 감사역량을 5대 민생분야에 집중해라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분야에서 몇 회를 감사했는지를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다른 분야를 감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건소는 '97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데다가 그해 연말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감사를 나름대로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제의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5대 분야 외에는 일체 다른 분야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금년도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지 않습니다. '97년 말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초에 하고 '97년말에 예산회계분야를 보면서 보건소 분야도 많이 봤습니다. '97년 말에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 연말에 감사원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5대 민생분야 외에 다른 분야의 감사는 일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安載弘委員 본 위원의 질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급관서인 서울특별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감사는 잘 하시겠지만 부분감사는 기관감사나 종합감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에서 '99년 연초에 세운 자체감사 계획보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그렇습니다.

○安載弘委員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도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는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납득되도록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25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즉 적어도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의 인원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시냐고요.

○監査擔當官 河撤昇 거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가 매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살살이 감사를 하려면 당연히 25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그 부서에서는 최소한 보름정도는 사실상 업무가 마비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연중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그 내용은 연계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감사계획을 세우려해도 상급관서인 감사원이나 또는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로 감사를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29명의 현원을 가지고라도 6개 이상의 부서를 감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종로구 행정사무규칙에 규정된 대로 하기가 어렵다면 그 사유가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종합감사를 규칙에는 규정을 해놨어요. 구청은 2년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3년마다 하게 하고 보건소는 2년마다 하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그 규칙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監査擔當官 河撤昇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규정을 그대로 지키기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청은 2년마다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공사분야도 3년만에 처음 봤습니다. 그 정

도로 실제 그 주기를 지키기란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와서 한번도 손을 못 대본 분야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저희들 감사업무를 독려하기 위한
훈시규정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꼭 거기에
속박을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그 규정을 개정이 사실상 필요한 규정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安載弘委員** '99년도 자체 감사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지금 약 12개 분야에 대해
서 종합감사, 기관감사, 부분감사, 시책감사 이렇
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이거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감사가 실시되었나요?

○**監査擔當官 河徹昇**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제
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수
립했던 대로 계획에 일정의 변경은 다소 있었으리
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거의다 감
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安載弘委員** 감사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인사상
의 특전이나 감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평
장히 제한되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다소 제한은 받고 있습니
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감사 공무원이 되려면 적
어도 모범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서울
시장의 표창을 받아야 되고 또는 전문적인 자격증
이 있거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만 감사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監査擔當官 河徹昇**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
능하면 우선 그런 직원 중에서 우선적으로 직원을
가능하면 선발을 하되 기타 또 감사실 근무 직원
으로서의 어떠한 자질과 역량이 있는 직원 중에서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安載弘委員**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느
낀 점 중의 하나가 전혀 감사카드가 기록이 비치
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
서 감사담당관은 적어도 종로구 감사규칙이 규정
한 대로 우선 일선 행정기관인 등에도 감사카드나

기록, 확인 점검서를 비치해서 적어도 감사와 관
련된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지적되도록 그렇게 최
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보건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 방역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러
도 되겠죠?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예, 지금 8,800만원입니
다.

○**安載弘委員** 금년도에 집행 실적은 어느 정도
되죠?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지금 집행금액을 확실하
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감사를 받으려면 예산의 집행상황
과 예산의 편성 내용과 집행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집
행이 되었는지도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감사를
받으러 나오셨어요?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해
왔는데 세세한 것은 금방

○**安載弘委員**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예산의
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죠. 그것이 감사의 기
본이 아니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7천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예산 대비 약간 거의 80%
이상이 집행되었는데요 방역활동을 민간인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소독업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소독업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방역활동에 들어간 예산과 인원을 민간에 이양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
막소독이나 이러한 연기를 내뿜는 그러한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

라서 민간부분에서 행하고 있는 방역활동을 통합해서 보건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부분에 예산과 인원을 이양해서 민간부분으로 하여금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다른 보건소에서 한 예를 봐서는 그것이 상당히 좀,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保健行政課長 崔容洵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구청 중에 강남구하고 강북구하고 민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하다가 '99년도에 와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맡아서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어요. 민관이 하면 감독하는 사람들도 별도로 보건소에 뒤야 되고 공익적인 부분인데 민간인이 하나냐 좀 주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단점이 발견되어서 지금은 다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행정기관의 행정은 굉장히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이양할 것은 이양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을 민간부분에 이양하는 계획은요 그 사람들은 봉투 판매수수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연간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소에서 그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쓸 게 아니라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보건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질문의 취지입니다. 2000년 이후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이나 현황을 보면 2000년도도 그러한 주요업무 추진내용이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굳이 모든 일을 다하려고 하지 말고 방역활동 하나라도 민간에게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민간으로 하여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소장님과 관련공무원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질문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예.

○安載弘委員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議席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합시다.)

○委員長 李憲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8分 會議中止)

(15時28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인데 종로구 구기동에 211번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구거부지입니다. 구거부지인데 구거부지 상에 무허가 주차장, 그러니까 차고를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꽤 오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건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든 처리하지 않아서 '98년도와 '99년도 수해 때 도로가 훼손되고 담장이 붕괴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처리를 시정요구했지만 한번도 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2개의 담을 이웃해서 하나는 빌라와 하나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두 분 간에 갈등이 상당히 큼니다.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이 주민의 민원사항을 보살피고 주민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신속하게 시정해 가지고 내년 우기 때에는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감사담당관입니다. 安載弘委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관련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어요.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엄청난 행정비용의 낭비가 됩니다. 더군다나 손해가 일어나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된다면 그 역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누구 돈이 들어가든지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따라서 그 건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해결해줄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監査擔當官 河徹昇 저희들이 면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차후에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오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건소 감사는 기술직인지는 몰라도 수감 태도는 사실상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 과에 배정된 예산 하나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도와 의약 관계는 잘 하고 계시는데 행정 관계는 미흡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은 오늘 盧張鐸 副區廳長님께서 여기 오셔서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도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관행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새 세기에 들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안되겠다는 이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감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은 연 사출동안 정말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아마 새 세기에는 정말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 실적 결과에 따른 강령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3分 會議中止)

(16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감사 실시 부서에 대한 강령을 하겠습니다.

市民行政委員會委員長 李憲九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평가하고자 합니다. 본연의 업무를 뒤로 한 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구정의 추진방향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중요한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반복적, 선례 답습적으로 집행해오던 일들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반추해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구정

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IMF로 봉급이 삭감되고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직원들이 맡은 바 분야에서 근무에 충실하며, 특히 대민 친절봉사 자세가 월등히 향상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의 물가관리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된 점, 그리고 가로휴지통 없는 시범거리 정착을 위하여 소형 휴대용 재떨이를 2만개 제작, 배부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발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감사자료의 제출이 너무 피상적이고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자료는 계수가 틀리는가 하면 통계자료 제출시 숫자만 나열하여 이해할 수 없는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감사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므로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별로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업무 추진시 국악공연 등 인원 동원성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련 행사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은 매년 지적한 바 시정이 안되며 오히려 골프연습비 등에도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통장회의 수당은 월 2회 회의에 참석한 통장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나 100% 참석한 것으로 하여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민방위훈련 면제 및 제외자를 처리할 경우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동 방위협의회 심의 후 처리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며, 임의단체보조금 예산 집행 후 정산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한 것은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정을 바라며,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가 공원 녹지과와 문화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시설 개·보수나 민원처리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종로사랑지 발행시 상업광고 또는 공익광고를 유치하고 지질을 낮춰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전가구에 배부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 효과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명륜3가동과 승인1동 등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에는 취미교실 강사료도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동행정차량도 회수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라며,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연간 1,200만원이나 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중랑초과나 규격미달 봉투 사용, 주소기재 착오 등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반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수립,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명예구청장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 각종 행사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예우 등에 관하여 선출직인 구의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신축관련 지방채를 40억 발행하였으나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하는 지역은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례식장 이용시 밤 11시에 들어가도 1일로 간주하여 요금을 받고 비싼 차체차량만 사용하게 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것은 상주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경로당이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은 지역이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므로 통·폐합하는 등 과감히 정비할 것이며,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규격봉투

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업소에서 사례비를 받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결국 세수 감소와 직결되므로 시정 조치바라며, 규격봉투판매소에 봉투 공급시 발생하는 불량봉투나 부족수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및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단순한 벽보 제거나 쓰레기줍기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적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할 것이며, 매월 지원되는 경로당 지원비는 전월 운영비의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하기 바라며, 지붕길 확장공사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서민 도시가스 공급 민원을 신속히 접수 처리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자치구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고, 어린이집 소방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게 하고 이에 따라서 정기적인 훈련으로 유사시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시 교통 취약지역은 직접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위치나 진료내용 등을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거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는 혈관으로 말하면 모세혈관에 해당되므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감사가 불가하면 당사자에 대한 수시교육이나 현지도도를 통해 행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동행정 감사시에는 동장이나 직원들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관심도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안내원이나 직원들에게 인사예절, 전화 친절도 등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은 의회사무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운영위원회실로, 시민행정위원님들께서는 13시까지 시설관리공단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중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時27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副區廳長 盧張鐸
保健所長 李星世
監査擔當官 河徹昇
保健行政課長 崔容洵
保健指導課長 金相駿
醫藥課長 丁基聲

